

탄소시장 동향 브리프

2026년 7월 3주

SBTi 넷제로 표준 2.0, 탄소제거크레딧 구조적 수요 창출로 자발적 시장에 성장동력 제공

- 탄소 제거 책임 강화에 따른 크레딧 수요
확대 및 양질의 제거 크레딧 선점 경쟁 가능성
-

SBTi 넷제로 표준 2.0, 탄소제거크레딧 구조적 수요 창출로 자발적 시장에 성장동력 제공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넷제로 표준 2.0을 발표하며 '지속배출책임(OER)'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기후 대응을 목표 설정 중심에서 실제 감축 이행과 잔여 배출에 대한 책임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의 참여수준에 따라 탄소 제거에 대한 기여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2035년부터는 카테고리A 기업을 시작으로 책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그간 위축되어 있던 자발적 탄소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규 수요를 만들것으로 예상된다.

BVCM 대체할

'지속배출책임' 프레임 도입, 이행·책임성 중심으로 전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권고 방식으로 운영되던 'BVCM'을 'OER'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배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행 체계는 ▲자발적 참여, ▲의무 이행(2035년~), ▲목표 연도에 모든 잔여배출량 완전 상쇄. 3단계로 구성되며, 자발적 참여 단계에서는 참여·심화·리더십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상쇄 비율과 톤당 20~80달러 수준의 기여 예산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와 같이 대기 중에 장기간 남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 10%에 대해서는 수백~수천 년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기 저장형 탄소 제거 수단을 활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넷제로 관련 거버넌스, 목표 설정 및 이행, 보고와 평가, 잔여배출에 대한 책임 등 5개 영역의 요구 사항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SBTi에 따르면 현재 11,000개 이상의 기업이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했거나 설정을 약속한 상태이며 2025년 한 해 동안 관련 목표를 채택한 기업도 40% 증가했다. 신규 표준에 따른 목표 검증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사점

OER 도입에 따른 탄소 제거 수요 확대 및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SBTi 넷제로 표준 2.0은 기존의 권고 수준의 기후기여를 넘어, 기업이 넷제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에 대해 단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기업의 기후 대응을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한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실질적 배출 감축 이행과 OER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35년부터 배출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기여 수준에 따른 참여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업은 직접 감축뿐 아니라 탄소 제거 수단까지 중장기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연 기반 및 기술 기반 탄소 제거사업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확대되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예측가능성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체계에서 활용되는 탄소크레딧은 기업의 가치사슬 내 직접 감축을 대체하는 전통적 의미의 상쇄 수단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시장 확대와 함께 크레딧의 환경건전성과 검증 투명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BVCM** : Beyond Value Chain Mitigation, 가치사슬 밖 완화

***OER** : Ongoing Emissions Responsibility, 지속배출책임

관련 기사 및 참고자료

- 1) 이승균, SBTi CEO "기업 기후 대응, 목표 설정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
- 2) 이신형, "SBTi, 넷제로 인증 준비 6개월 이상 소요... 필요 데이터는?"
- 3) SBTi Trend Tracker